

보도시점 (지 면) 5. 17.(수) 조간
(인터넷) 5. 16.(화) 12:00

케이팝(K-POP)과 유망 중소기업 제품이 한자리에, ‘케이콘(KCON) 제팬(JAPAN) 2023’ 성황리에 종료!

- 중소기업부, 「케이콘(KCON) 제팬(JAPAN) 2023」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·판촉전 종료
- 40개 중소기업이 참가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55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및 판촉전 3일간 현장 판매 8만달러 등 한류의 힘으로 일본 현지 판로개척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한류 문화행사인 「케이콘(KCON) 제팬(JAPAN) 2023」과 연계한 중기제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「케이-컬렉션(K-COLLECTION)」을 5월 11일(목)부터 14일(일)까지 4일간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미용(뷰티), 생활용품,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하였으며, 11일에 도쿄 국제포럼(Tokyo International Forum)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구매자(바이어) 124개사와 263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.

판촉전은 12일부터 14일까지 케이콘(KCON)이 열리는 마쿠하리 멧세(Makuhari Messe)에서 진행되었으며, 「케이-컬렉션(K-COLLECTION)」 부스에만 누적 10만명이 방문하며 참여기업 중 33개가 완판 또는 부분 완판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와 더불어 향후 수출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.

특히, 떡볶이 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은 「케이-컬렉션(K-COLLECTION)」에 다년간 참가하여 쌓은 연계망(네트워크)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현지 구매자(바이어)와 5억엔(380만달러)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케이(K)-음식(푸드)의 인기를 보여주었다.

이영 장관은 “일본은 해외에서 케이팝(K-POP)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, 케이팝(K-POP)에 대한 사랑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일본 현지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”고 말하며, “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봉덕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우 (044-204-7502)
			주무관	서은별 (044-204-7512)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

□ 개요

- (주최·주관) 중소벤처기업부 / 대·중·소·기·업·농·어·업·협·력·재·단, CJ ENM
- (일시·장소) '23.5.11(목) ~ '23.5.14(일), 일본 도쿄

구분		일시	장소
도쿄 K—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	B2B 수출상담회	5.11(목) / 10:00~18:00	도쿄 국제포럼 E2홀
KCON JAPAN 2023	B2C 현장판촉전	5.12(금)~14(일) / 10:00~18:00	마쿠하리 멧세 H4~6
	K-POP 콘서트	5.12(금)~14(일) / 19:00~22:00	마쿠하리 멧세 H1~3

- (지원내용) 한류 관람객 및 현지 소비자 대상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·판매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

□ 지원성과

- (실적) 중소기업 40개사*가 참여하여 총 888만달러 성과 달성

* 뷰티 22개사, 생활용품 10개사, 식품 6개사, 패션 2개사

- (현장 판매) 현장판매액 8만달러, 현장계약액 550만달러(19건), 추후 계약 가능액 330만달러로, 총 888만달러 성과 기록(5.15 기준)

- (온라인 판매) 추후 파악 가능

* 큐텐(Qoo10)을 통해 온라인 기획전 추진('23.4.28~6.9)

< KCON JAPAN 2023 실적 >

구분			성과
수출상담	상담	상담건수	263건
		상담액	약 1,200만달러
		현지 바이어수	124개사
	계약	계약액	약 550만달러
		계약건수	19건
		계약예상액	330만달러
판촉전	현장	판매액	8만달러
		현장판매 건수	약 18,000건
		부스 방문객 수	약 10만명
	온라인	판매액	(추후 확인)